

# 20대, 고용률 떨어지고 실업률 오르고

취업의 주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 고용지표가 6월 들어 악화 일로를 걷는 모습이다.

실업률이 오르는 한편, 고용률은 떨어졌다. 취업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늘어 20대의 구직 행위 자체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3% 포인트 상승한 10.6%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6월을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20대 실업률이 6월 역대 최고치를 찍은 셈이다.

20대 실업률은 전체 청년(15~29세)실업률보다도 높다. 6월 청년실업률은 10.5%로, 20대 실업률이 0.1%포인트 높았다. 청년 중에서도 20대의 실업난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도 20대 실업률은 두드러진다.

6월 40대 실업률은 2.1%로 20대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30대(3.2%)와 50대(2.5%), 60세 이상(2.3%) 등도 20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 상승을 꼭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통상 경제활동인구가 늘면 고용률과 함께 실업률도 증가해 고용 시장의 활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20대 실업률 증가는 부정적인 신호에 가깝다. 고용률과 함께 경제활동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6월 20대 고용률은 58.5%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오르는데 고용률은 떨어지면서 20대가 뚝고 들어갈 취업 시장의 문턱이 높아진 셈이다.

문턱이 높아지면서 20대 취업시장의 활력 자체가 떨어진 신호도 감

20대 실업률 10.6%...6월 기준 역대 최고치

고용률 하락...취업 문턱↑·고용 참여 저하

경제활동인구 1.2%↓·비활동인구 3.7%↑

지됐다

6월 20대 경제활동인구는 42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했다. 반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223만명으로 3.7% 증가했다.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에 뛰어드는 20대는 줄어드는 한편, 이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20대는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대 중에서도 주 취업계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 중후반의 고용 시장 참여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

6월 25~2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77.2%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포인트 떨어졌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한 인구의 비중을 뜻한다.

25~29세 전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했다.



초슬림 사이즈 냉온정수기 현대백화점을 토탈홈케어 렌탈기업인 현대렌탈캐어가 15일 서울 현대시티를 가든파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가로 폭 15cm의 초슬림 적수형 냉온정수기 현대큐밍 더슬림 등 생활 가전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 직장인, 연차휴가 절반밖에 못써...왜 못가냐고?

평균 15일중 7.9일써...5일 미만

직장 분위기·대체 인력 부족 등  
다르면 소비 지출액 16조8천억↑

우리나라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가 발표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 사용 촉진방안 및 휴가 확산의 기대효과 조사 결과'(연구기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임금근로자는 연차휴가 평균 15일 중 7.9일을 사용

해 52.3%의 사용률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평균 휴가일수가 20.6일, 휴가사용률 7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2016년 11월 익스피디아 OECD 주요국 휴가사용률 인용)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휴가 사용일이 5일 미만이라는 대답이 33.5%로 가장 높았다. 연차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11.3%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늘어났다. 하지만 사용일수는 20대와 50대가 모두 평균 7.7일로 차이가 없었다. 공공 기관의 연차휴가사용률(44.7%)이 민간

기업의 사용률(55.1%)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장애요인으로는 직장 내 분위기가 4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업무과다 또는 대체 인력 부족(43.1%) ▲연차휴가 보상금 획득(28.7%)의 순이었다. 연차휴가 사용 불필요 응답도 16%나 됐는데 이는 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삶에 대한 만족감 하락(49.9%)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업무 능력 저하(38.5%) ▲스트레스 및 피로 누적으로 인한 건강 문제(33.3%) 등을

꼽았다.

휴가사용 횟수는 연평균 5.85회, 최장 휴가사용일은 평균 3.08일로 나타났다. 대체로 연차휴가를 짧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휴가사용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용근로자 1400만 명(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포털 2016 상용근로자 기준)이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여가소비 지출액은 16조 8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여행 5조9000억 원, 해외여행 국내소비 6조6000억 원, 문화·오락 3조 5000억 원, 휴식·기타 8000억 원이다.

생산유발액은 29조3000억원, 부가 가치 유발액은 13조 1000억원, 고용 유발인원 21만 8000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한지붕' 현대·기아차, 소형 SUV 시장 코나·스토닉 맞대결...본격 판매 돌입해

한지붕 아래있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소형 SUV 신차를 잇달아 출시하며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코나'를, 기아차는 지난 13일 '스토닉'의 판매에 본격 돌입했다. 국내 소형 SUV 시장이 지난해 11만여대 규모로 크게 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초반 반응은 코나가 더 뜨겁다. 스토닉은 국내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 까지 영업일수 12일 동안 1500여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코나가 비슷한 기간 사전계약 실적 5000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정도다.

판매 목표도 코나가 더 공격적으로 잡았다. 코나는 올해 연간 판매 목표를 2만8000대로 잡았다. 월 4300대 정도다. 스토닉은 월 판매 1500대를 제시했다.

코나와 스토닉은 공통적으로 첫차를 구매하는 2030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코나는 개성과 작지만 강한 성능을, 스토닉은 가성비를 내세우는 다른 전략으로 소비자 사로잡기에 나섰다.

우선 차체 크기를 보면 코나가 스토닉보다 다소 크다. 코나의 전장·전폭·전고는 4165·1800·1560mm, 스토닉은 4140·1760·1520mm이다. 코나의 전장이 스토닉보다 20mm 가량 길고, 전폭은 40mm 넓다. 전고는 30mm 가량 높다.

디자인은 코나가 개성을 앞세웠다. 스토닉은 보다 심플하다. 코나는 아이스하키 선수의 보호장비를 연상시키는 범퍼와 상하 단으로 분리된 컴포지트 램프, 근육질의 차체가 강렬한 인상을 낸다. 스토닉은 실용성, 안정감이 강조됐다. 전면에 날렵함이 돋



보이는 헤드램프 앞모습의 후드로 휠 아치로 이어지는 볼륨에 특징적인 캐리더라인을 더하고, 옆모습은 기아차 최초로 스키야 브리지 루프랙을 탑재했다.

엔진 라인업의 경우 코나는 1.6 가솔린 터보 GDI 엔진과 1.6 디젤 eVTG 엔진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 반면, 스토닉은 1.6 디젤 단일 모델로 구성됐다. 두 차량 모두 7단 DCT 변속기를 탑재했다.

힘에서는 디젤 엔진 기준 코나가 최고 출력이 130마력, 스토닉은 110마력으로 코나가 앞선다. 최대 토크는 30.6kgf·m으로 코나 디젤모델과 스토닉이 동일하다.

엔비의 경우 스토닉의 복합연비가 15인치 타이어 장착 기준 17km/l, 17인치 타이어 기준 16.7km/l이다. 코나 디젤모델은 16인치 16.8km/l, 17인치 타이어 16.5km/l, 18인치 타이어 16.2km/l로 스토닉이 미세하게 앞섰다.

가격은 스토닉이 가성비를 내세우며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스토닉의 가격은 기본트립인 디럭스가 1895만원부터 시작한다. 코나의 디젤 모델 대비 195만원 가량 저렴하며, 국내 디젤 SUV로는 유일하게 180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다.

뉴시스

## 오늘 Lotto 제 763회차 당첨결과 (2017년 7월 15일 추첨)

3 8 16 32 34 43 + 10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8	2,138,130,000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45	63,352,000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 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019	1,412,006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94,176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562,106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 기준 :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익일당첨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는요... 자태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태치료검진, 자태치료 중인 민척군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간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 콜센터 129 | | 고객센터 1577-1000 |